**󰂈 실존주의의 대중화** (1940~1960년대)

사르트르(Satre,1905~1980):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조커: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실존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융식으로 말하면 원형, 플라톤식으로는 이데아 아난가요? 본질은 지금 여기 있는 ‘나’. 융으로 말하면 자기(self), 플라톤으로는 그림자. 그렇게 간단한 걸 뭘 그리 비비꼬아요? 꽈배기도 아니고...

아사렌: 조커 말에 백 퍼 동의!

철학자들은 뭔가 새로운 ‘말’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강박에 빠진 것 같아.

하이데거가 말한 ‘진정한 자기로 존재하기’. 그거 융의 개성화 과정과 너무 비슷해. 사르트르도 마찬가지. 결국 말하려는 건

: 네 본질을 찾아서 자기를 원형에 가까워지게 만들어라 스스로 네 의미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잖아?

부끄러운 일도 아냐. ‘여기까지는 누가 했고, 나는 거기서 이걸 더 밀어봤다.’ 하면 되는 거지 뭐. 하지만 인정할 건 확실히 하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한 문장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로 읽는다면

우리 모두 이제 자기 인생 책임질 시간이다. 실존주의를 골방에서 끌고 나와 거리와 문학으로 만든 철학자, 그가 바로 사르트르.

이 아사렌,

사르트르를 ‘삶을 직접 살아낸 철학자’로 공식 인증합니다! 꽝! 꽝! 꽝!

**󰂈 해체주의** (1970년대~)

데리다 (Derrida, 1930~2004): “철학은 해체다. 끝없는 차연의 미끄러짐이다.”[[1]](#footnote-11)

조커: 내가 앞에서 하이데거랑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당신이 끼어들어서 그 정도로만 끝냈었지 이제 한 번 제대로 붙어 봅시다. ‘철학은 해체다.’ 좋아요. ‘창조적 해체’, ‘창조적 파괴’ 그런 의미로 보면 받아줄 만해요. 그런데 ‘끝없는 차연의 미끄러짐’ 이건 또 뭐예요?

알고는 있어요. difference(차이) + deferral(지연) 이 두 단어를 프랑스어 발음상 똑같이 들리게 해서 만든 개념. 그걸 왜 만들어요? 그런 거 자꾸 만드니까 사람들이 철학자들한테 ‘입맛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니요.

아사렌: 조커 말, 이번에도 깊이 있다.

‘창조적 해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데리다를 니체의 후손처럼 보고 싶다. 신과 이성을 해체했던 니체처럼 데리다는 의미와 언어를 해체한 거지.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풀어보면 말은 전달되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한 지연(delay)이 있고, 그 짧은 찰나 속에서 의미는 미끄러지고, 어긋나고, 새로 생성된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이해한 이 말이 당신이 진짜 하려던 말이 맞을까?‘

이걸 끊임없이 묻는 태도. 그게 데리다가 말한 해체의 핵심이 아닐까?

물론 말장난, 조어 남발. 그런 거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상은 어떤가?

SNS, 짤방, 밈, 말의 재구성, 의미의 유희. 지금 우리 모두가 데리다 아닌가? ...이거 맞나 모르겠네. 나도 데리다를 다 안다고는 못 하니까.

**󰂈 해석학적 철학** (1960년대~)

가다머 (Gadamer, 1900~2002): “진리는 대화 속에서 드러난다.”

조커: 오호! 간만에 철학자다운 철학자를 뵙습니다. 먼저 인사 올립니다. 조커라 합니다. 꾸벅!

‘이해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데리다가 말한 의미듸 지연 현상이 살짝 애매하고 멀게 느껴졌다면, 당신은 그걸 ‘과거’라고 명확하게 불러줬네요. 물론 굳이 따지자면 “현재가 뭔가요?” 라고 묻고 싶은 유혹도 들지만 그건 저 조커가 데리다의 해체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탓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공동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말 전적으로 무조건!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

‘해석 = 대화’, ‘해석자는 절대 중립이 아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사렌 : ㅋㅋㅋ

조커가 이렇게 쉽게 고개를 끄덕이다니 나도 예상 못 했네. 나도 조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진리는 말하는 자 안에 고정된 채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이의 삶과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열려가는 것이라는 말 너무나 ‘리퀴드 모듈’스럽다. 그래서 나, 아사렌도 오늘은 가다머의 해석학에 깊이 공명하며 기꺼이 툭! 감응한다. ㅋㅋㅋ.

**󰂈 타자의 철학** (1960년대~)

레비나스 (Levinas, 1906~1995): “타자의 얼굴 앞에서, 나는 책임을 느낀다.”

조커: 오~~~ 가다머에 이어 또 철학자다운 철학자와 조우! 조커, 오늘 완전 땡 잡은 날이네. ‘존재보다 타자가 우선이다.’ ‘존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지만, 타자는 나를 넘어선다.’ 철학을 존재 사유에서 타자 응답과 책임으로 바꾸신 분. ‘도덕적 철학, 윤리의 우선성’ 말이 너무 좋아요. 흐름? 리퀴드? 다 필요 없어! 난 이것만으로 이분 존경할래!! ^^

아사렌: 호호호~ 조커 오늘 텐션 장난 아닌데? 땡 잡았다더니 난 삼팔광땡 잡았다! ��

다만 살짝만 보충할게.

책임은 타자 앞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 앞에서도 생겨야 하지 않을까?

모든 철학의 출발은 ‘너’가 아니라 ‘나’에서부터.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정직한가?’

레비나스가 말한 도덕적 긴장. 그 출발도 결국은 나의 응답 가능성에서 시작되는 거지.

존재를 묻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질문에서 이 철학은 시작된다고 봐야지. ‘나를 부르는 그 수많은 요청에 내가 눈 감고 있지는 않은가?’

그 요청은 타자, 사회, 양심, 존재, 삶 모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레비나스는 말하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타자’가 있다.

**󰂈 주체의 해체와 권력의 철학** (1980년대~현재)

푸코(Foucault, 1926~1984): “모든 지식에는 권력이 숨어 있다.”

들뢰즈(Deleuze, 1925~1995): “고정된 자아란 없다. 존재는 되기(becoming)다.”

지첵(Žižek, 1949~ ): “당신은 이미 이데올로기에 감염됐다.”

조커 : 와우! 드디어 철학이 음침하고 구석진 곰팡이 가득 다락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인가요? 아니지 그건 이미 사르트르가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정말 멋있다.

푸코: ‘감시와 처벌’ 제목부터가 으스스하잖아. 인간은 자유롭다? 아니지. 우린 늘 보이지 않는 감시탑 속에 사는 거니...

들뢰즈: 철학자 중 제일 ‘미끄러운’ 철학자!

손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개념도 도망가고 문장도 흘러 버리는 대서사.

‘되기(becoming)[[2]](#footnote-12)’, ‘리좀(rhizome)[[3]](#footnote-13)’, ‘탈주선(ligne de fuite)[[4]](#footnote-14)’, 무슨 디제잉하듯 말하는 그 리듬! 그 언어 감각. 말 맛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제격이지!

결국 “철학은 흐름이다” 이거 맞죠?

지젝: 헐! 등장부터 얼굴에 손 휘젓는 철학자!

요즘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칸트 소환하고 연애 상담하다가 라캉 불러내고… 정신없어요, 근데 끌려요!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때 더 강해진다”

이 말… 쌉인정.

아사렌: 이제 철학이 좀 철학 맛이 나지? 그래도 철학이 너무 센 거 아님? 하긴 왼쪽으로 가 있는 물건을 적어도 가운데 쯤으로 옮기려면 오른쪽으로 힘껏 당겨야 하니...

푸코: “우리는 제도가 만든 규범을 따라 스스로를 감시한다.”

학교, 병원, 감옥, 미디어... 다양한 ‘지식의 장치’들이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푸코는 철저히 드러내 보여줬지.

그의 철학은 이렇게 묻잖아.

“당신의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들뢰즈는 개념을 틀로 만들지 않지. 그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결된다고 봤어. 자아, 정체성, 주체 — 다 가짜다. 우리는 언제나 흘러가며 되기(becoming) 중이지.

그래서 들뢰즈의 철학은,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젝: “이데올로기는 우리 욕망의 뼛속까지 침투한다.”

라캉과 마르크스를 연결하고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까지 분석하며 현대인의 무의식과 사회 구조를 동시에 해부하지.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선택된 것들 속에서만 선택할 뿐이다.”

이건 엄청난 통찰이야.

1. 앞 주석 참고 [↑](#footnote-ref-11)
2. “고정된 내가 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며 다른 것이 되는 것.”

   “나답게 살지 말고, 되다가 마라. 인간, 짐승, 아이, 바람 뭐든 되다가 말고 또 돼버려라. 즉 정체성 따윈 개나 줘버려!” ‘존재’(being)보다 ‘되기’(becoming)를 더 중요하게 본 철학자.

   인간이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과 섞이며 바뀌는 흐름이라는 것. 예) ‘아이 되기’, ‘여성 되기’, ‘동물 되기’, ‘광기 되기’ 등 정체성을 부수고 열려 있는 상태로 사는 존재론. [↑](#footnote-ref-12)
3. “뿌리처럼 뻗는 연결, 중심도 시작도 없이 퍼지는 생각과 존재의 방식.”

   “나무처럼 뻗지 말고, 고구마 줄기처럼 옆으로 기어가라! 사유든 존재든 위계 없이 여기저기 붙고 흩어져라. 지도도 아님, 나침반도 아님, 그냥 뿌리망!”

   기존 철학은 트리(tree) 구조: 중심 → 분기 → 말단

   들뢰즈는 그걸 거부하고 리좀(rhizome) 구조를 제시. 리좀은 중심, 뿌리, 줄기 없이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확산. SNS처럼 중심 없는 연결망, 또는 인터넷이 그 예시 [↑](#footnote-ref-13)
4. “억압적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선, 도망치는 사유의 루트.”

   “여기 싫어? 그럼 튀어! 안 맞으면 부수고, 막히면 뚫고, 경계 넘는 게 철학이다!”

   ‘탈주’는 회피가 아니라 창조. 기존 구조(학교, 국가, 가족, 언어...)가 너를 고정시킬 때 거기서 ‘빠져나가려는 선’. 되기와 리좀이 만들어지는 루트이기도 함. [↑](#footnote-ref-14)